

# “이용자 붙잡아라” ... 놀거리 늘리는 메타버스

## 이프랜드·제페토 콘텐츠 대전

SK텔레콤, 네이버 등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놀거리’를 도입하고 있다.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토크쇼를 여는가 하면 이용자가 직접 만든 게임을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가상세계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6일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서 뮤직 토크쇼 ‘함춘호쇼’를 열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와 실시간 영상중계를 통해 라이브 공연, 토크쇼 등을 선보였다. 단순히 전광판을 통해 영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볼륨매트릭 기술로 촬영한 360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볼륨매트릭은 1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촬영해 실시간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이날 공연에는 최근 영화 ‘헤어질 결심’의 수록곡을 부른 송창식, 정훈희가 출연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2회에는 장필순, 다음달 3일에는 정훈희, 김태화 부부가 출연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공연을 비롯해 메타버스 라이브 연극, 아바타 노래자랑, 찬반토론회,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열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를 붙잡을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 기회를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 제페토의 제작 도구 ‘빌드잇’을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만든 ‘한옥마을’.

### “서비스 체류시간 늘려라” 특명 SKT 이프랜드, 뮤직 토크쇼 노래자랑·토론회도 매일 개최

### 네이버 제페토는 K팝 팬덤 공략 크리에이터 생태계 적극 지원

영 중인 아바타 노래자랑은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일종의 ‘마중물’이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회사 측이 먼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후에도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프랜드를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양

맹석 SK텔레콤 메타버스CO장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각종 콘텐츠와 모임을 자체적으로 선보이는 콘텐츠의 선순환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선발주자인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자발적인 생태계가 활성화됐다. 지난 6월 기준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들어 판매한 아이템 수는 1억 5000만 개에 이른다. 거래액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다.

K팝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이용자들이 모여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것도 제페토의 특징이다. 이달 15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는 제페

토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연 가상 팬사인회에는 글로벌 팬 4600만 명이 참여했고, 제페토를 이용해 만든 뮤직비디오 역시 조회 수가 1억3000만 건을 넘었다.

이 같은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으로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제작 도구 ‘빌드잇’을 들 수 있다. 의상, 아이템은 물론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 도구를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페토의 장점이다. 제페토에서 한옥마을 맵, 점포 맵 등을 만든 크리에이터 ‘목은’은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 구글, 하드웨어 침공 속도내나

## 자체개발 스마트폰 픽셀7 공개 첫 스마트워치 ‘픽셀워치’ 눈길 13일부터 판매 ... 해외 출시 미정

구글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신제품 픽셀7 시리즈와 첫 스마트워치 픽셀워치를 공개했다.

구글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라이브 공연장 내셔널스튜디오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 ‘메이드 바이 구글’을 열었다.

픽셀7 시리즈는 구글이 설계한 시스템 온 칩(SoC) ‘텐서 G2’가 적용됐다. 구글은 지난해 픽셀6 시리즈부터 퀄컴의 프로세서 대신 자체 SoC를 쓰고 있다. 텐서 G2는 픽셀7 시리즈의 사진과 동영상 처리, 음성 인식 등 인공지능(AI) 성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최신 안드로이드13 운영체제(OS)를 비롯해 최대 72시간까지 쓸 수 있는 배터리 성능과 30W 유선 충전, IP68 방수 기능, 화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 등이 포함됐다. 카메라는 기본 모델인 픽셀7이 후면 듀얼 카메라, 픽셀7프로는 트리플 카메라다. 픽셀7프로는 5배 망원렌즈를 이용한 30배 줌 기능 등을 제공한다. 전면부는 1080만 화소 카메라가 공통 적용됐다. 출시가는 픽셀7이 599달러(약 84만원), 픽셀7프로는 899달러(약 127만



구글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스마트폰 픽셀7(왼쪽)과 스마트워치 픽셀워치. 구글 제공

원)부터다.

구글의 첫 스마트워치 픽셀워치도 공개됐다. 구글은 지난해 웨어러블 기기 전문 업체 핏빗을 21억달러(약 3조원)에 인수했다. 픽셀워치에는 운동, 수면 시간, 걸음 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핏빗의 건강추적 기술이 내장됐다. 구글 월렛을 통한 비접촉 결제와 원격 카메라 조작, 스마트 홈 컨트롤 등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출시가는 와이파이 제품이 349달러(약 49만원), LTE 제품은 399달러(약 56만원)부터다.

픽셀7 시리즈와 픽셀워치의 공식 출시 시는 오는 13일이다. 다만 한국 등 해외 출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만들고 있지만 하드웨어 분야에서 영향력이 미미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 수준이다.

이승우 기자

## PDF 국내 보급 ‘일등공신’ 유니닥스

### 오피스종기

### 한글 전용 폰트로 변환 지원

PDF는 미국 어도비에서 만든 문서파일의 한 형태를 일컫는다.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PC에서 동일한 형태의 문서를 볼 수 있는 파일 포맷의 표준으로서 인기를 얻었지만, 한국에선 2000년대 초반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글 폰트를 안정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니닥스는 한글 서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솔루션을 앞세워 PDF의 국내 보급에 앞장선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정태 유니닥스 대표(사진)는 “한글 전용 폰트를 글꼴이나 이미지 대체 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완벽한 변환을 지원하는 기술을 국내에 가장 먼저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니닥스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정 대표가 2000년 창업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다녔던 직장이 어려워져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전자문서 시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대표 제품은 ezPDF Editor(이지피디에프 에디터) 3.0이다. 이 제품은 문서 생성부터 변환, 편집, 주석 추가 등 PDF 전자문서 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편집 소프트웨어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건수가 500만 회를 살짝 넘는다고 정 대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PDF 솔루션에 접목해 전자문서 사용 편의성을 확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 누리호에 쓰인 K발사체 기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

한국형 발사체(로켓)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화에 에어로스페이스를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체계종합기업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의 일환이다.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이 개발한 누리호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해 ‘한국형 스페이스X’를 만드는 것이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형 발사체 1~3단 및 전기제 제작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기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행한다. 김진원 기자

## 수학 과외앱 판다, 카톡만큼 많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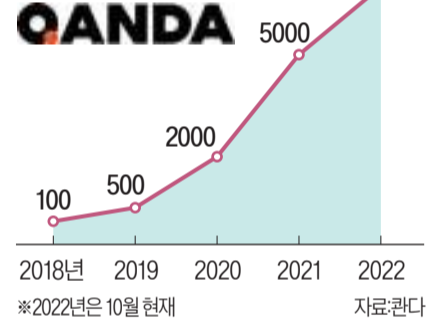
### 가입자 수 7421만 명에 달해 베트남서 그랩보다 많이 이용

인공지능(AI)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수학 교육 앱 ‘판다’의 가입자 수가 7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앱이 한국 인구수를 추월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해외 사용자의 반응이 뜨겁다는 얘기다.

판다 운영사인 매스프레소는 이 앱의 가입자 수가 7일 기준 742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2000만명가량 급증했다.

판다는 수학 문제 풀이 앱이다. 사용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수학 문제 사진을 찍으면 AI가 자동으로 풀어준다. 5초 이내에 문제 풀이와 관련 유형, 개념 영상 등 맞춤형 콘텐츠가 나온다.

### 급증하는 판다가입자 (단위:만명)



판다의 힘은 수학이 다른 과목과 달리 글로벌 언어 장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글로벌화가 빨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한 영향도 있다. 출시 2년 만인 2018년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이후 50여 개국에 관련 서비스

를 내놨다. 판다의 해외 가입자 비중은 87%에 육박한다.

특히 판다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민 교육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470만 명에 달한다. 동남아 ‘슈퍼 앱’으로 불리는 그랩보다 높은 수치다. 인도네시아에서도 MAU가 400만 명을 웃돈다. 동남아 지역은 선진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다 보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접했을 때 도움이나 지도를 받기 어려운 학생이 많다.

판다 가입자 규모는 국내 전체 앱 중에서도 정상급 수준이다. 국내에선 네이버(라인, 제페토, 밴드, 스노우 등)와 카카오(카카오톡, 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 등 일부 기업만 가입자 7000만 명 이상인 앱을 운영 중이다. 김주환 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8

